불교경전과 조사어록 특강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법을 설하다

주제 : 청정도론은 어떤 책인가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교수



김재성 교수는… 1988년 서울대학원 철학과 석사, 1995년 일본 동경대학원 인도철학불교학과 석사 졸업, 2000년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2012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선임연구원, 2013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불교의 이해〉〈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등을 펴냈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2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에서 '중도정신을 함양하는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강좌를 진행한다.

이중 청정도론은 경전의 삼장 규율을 제외하면 상좌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헌이다. 이번 함께가요강의실에서는 김재성 교수의 불교인재원 강좌 중 청정도론 강의를 요약 발췌하였다.

정리=신성민 기자

> **'청정' 지극히 청정한 열반 의미**
> **청정도는 '청정에 이르는 길' 말해**
>
> **붓다가 도달한 열반이란 최고 경지**
> **이르는 방법 설명한 책이 '청정도론'**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초기부파불교 전통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전해지고 있는 테라와다 또는 남방상좌부입니다. 그 연원을 붓다 시대의 불교에 두고 있고,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 시대 스리랑카로 전해진 이래 경율론 삼장을 온전히 갖춘 부파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부파가 테라와다입니다. 테라와다는 빠알리라는 중기 인도어의 하나로 삼장 및 주석문헌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전해지는 테라와다의 삼장과 주석서는 5세기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와서 정리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붓다고사는 스리랑카의 정통 테라와다 교단이 전해지는 마하위하라(大寺)에 와서 〈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ga)〉를 지어서 실력을 인정받은 후, 마하위하라에 전해지고 있는 스리랑카어 등의 지역 언어로 전해지고 있는 주석문헌을 빠알리어로 번역하면서 편집했습니다.

청정도(淸淨道)의 '청정'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경지인 지극히 청정한 열반(涅槃)을 말합니다. 열반을 의미하는 청정에 도(道)를 합해서 청정도가 되면 그 의미는 '청정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방편(方便)'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붓다가 도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열반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 〈청정도론〉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신 단 하나의 이유이면서 불교의 목적인 궁극의 해탈로서의 '열반',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청정도론〉입니다.

책의 내용은 "안의 엉킴도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고따마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 을 풀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붓다의 답인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계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상윳따니까야 '엉킴 경' S1:23)"라는 게송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개됩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사찰에 가서 예불을 올릴 때 오분향례를 하는데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에서 계정혜 세 가지를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예불의식을 통해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정도론〉은 계정혜 삼학을 칠청정으로 확대하여 총 2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장은 계청정(戒淸淨)으로 구성되어 계와 두타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장부터 13장까지는 심청정(心淸淨)으로 삼매 또는 정(定)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14장부터 23장까지는 혜(慧)에 해당하는 다섯 단계 청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전체 분량으로 보면, 계를 다루는 내용이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따라서 삼매와 지혜가 각각 45% 정도로 배정돼 있습니다. 계정혜의 삼학을 칠청정의 순서로 닦아 나가면 궁극의 목적인 열반이라고 하는 청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청정도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은 계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계란 몸과 입으로 짓는 행위를 선하게 하는 의도, 마음부수(심소), 단속, 범하지 않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스스로 다짐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의 종류에는 재가자의 경우 오계, 팔계, 구계(자애 + 팔계) 등이 있고, 출가자의 경우 사미계, 사미니계, 식카마나계,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습니다.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는 것은 일단 '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에는 여섯 가지 이익이 있는데 계를 지키면 △후회가 없고 △큰 재물과 훌륭한 명성을 얻으며 △두려움이나 창피함 없이 모임에 들어가고 △선처에 태어나며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번뇌의 소멸 성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청정은 수다원에서 이뤄집니다. 수다원이 되었을 때 사불괴정(불법승계에 대한 확신)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는 소욕지족의 생활규범을 말하는 두타행이 제시됩니다. 13가지 두타행은 의식주와 정진과 관련된 수행으로 △분소의 △삼의 수용 △탁발 음식 수용 △차례대로 탁발 △한 자리에서만 먹음 △발우 '한 개'의 탁발음식만 먹음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음 △숲에 머묾 △나무 아래 머묾 △노천에 머묾 △공동묘지에 머묾 △배정된 대로 머묾 △눕지 않음입니다.

비구는 13가지 모두 지키는 수행을 할 수 있고, 사미는 1, 3~13의 12가지, 비구니는 1~6, 12~13의 8가지, 식카마나와 사미니는 1, 3~6, 12~13의 7가지를 지키며, 재가신자는 5~6의 2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재가자는 음식을 절제하는 두타행을 실천합니다.

3장부터 13장에서는 마음의 청정인 심청정으로 삼매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善心一境性)'이라고 정의합니다. 불교의 삼매는 유익한 심리작용으로 삼매에 들어있을 때 불선근(不善根 탐진치)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삼매를 닦을 때는 스승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명상주제를 주는 스승(선우)이란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기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덕을 갖추고 오로지(타인의)이로움을 구하며 향상의 편에 서있는 이가 선우이라고 하면서 40가지 삼매 주제 가운에 자신의 기질에 맞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40가지 명상주제는 열 가지 까시나(十遍), 열 가지 부정(十不淨), 열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十隨念),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四梵住), 네 가지 무색의 경지(四無色), 한 가지 인식(食厭想), 한 가지 분석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삼매를 닦으면 다섯 가지 이로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①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現法樂住) ②심신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 지혜를 얻게 됩니다. ③5가지 신통력(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을 얻게 됩니다. ④색계정과 무색계정의 힘으로 색계 또는 무색계천의 천인(天人)으로 태어납니다. ⑤무색계정까지 이룬 자는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통찰지의 힘으로 멸진정(滅盡定)에 도달합니다.

마음집중(삼매)수행의 다섯 가지 공덕의 두 번째로 심신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청정도론〉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섯 가지 법의 범주인 온(蘊) 처(處) 계(界) 근(根) 제(諦) 연기(緣起)를 토양으로 성숙됩니다. 지혜의 몸체는 지혜가 향상되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말하며 〈청정도론〉 18장에서 22장까지 해설돼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마지막 23장은 지혜에 대한 4가지 이로움에 대해 설명한다. 지혜를 통해 온갖 번뇌를 끊고 성인의 깨달음의 결실(果定)에 도달하며 사무색계정을 닦은 수행자는 지혜의 힘으로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다의 가르침의 최고 경지인 아라한의 깨달음의 결실에 도달합니다. 북방 설일체유부의 구사론과 비견되며, 초기불교 수행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